

오전(1부, 노랑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에배 3부(오후) 3시
 수요일에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3년 3월 12일 (제1192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종합병원장?

어느 집사님이 내 별명을 붙여줬는데, ‘종합병원장’이란대. 그분 말씀이 “목사님은 암 환자도, 허리 아픈 사람도, 정신병도 다 치료하니 종합병원장 아니냐?” 하는데, 들어보니 맞는 말인 듯도 싶다. 종합병원에 가면 내과, 신경과, 산부인과, 정신과, 외과... 여러 진료과목이 있다. 거기에는 그 분야를 전공한 전문의사 선생님이 계셔서 치료를 해준다.

그런데 나는 무조건 다 고친다. 왜냐? 병명이 딱 하나이고, 치료법도 오직 하나이기 때문이다. 병명은 귀신이고, 치료법은 예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믿을 있는 자를 다 고친다. 이 말인즉 못 고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고 약을 주거나 수술을 권장해도 환자 스스로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명의라도 그를 고칠 수 없는 이유와 같다. 키르기스스탄에서 재판을 받았던 일이 있다. 내 집회 포스터에 ‘병을 고친다’는 문구가 문제였다. 그들은 나에게 “의사 면허 있나? 없으면서 왜 병을 고친다고 하나? 이 건 불법이다.”라고 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억지였고, 예수 이름의 소동이 일어나자 훼방자들이 찾아낸 고소거리였던 셈이다. 그들이 예수 이름의 영적 치유에 대해 알았을 리 만무했으니... 하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받았던 핍박인데, 내가 당하는 것이 무슨 대수랴! 예수로 인해 능욕 받기를 기뻐했던 제자들처럼 나 역시 오직 감사뿐이다.

여하튼 나는 병명을 불문하고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한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먹은 귀신아, 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장암을 일으키는 귀신아, 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앞을 못 보게 하는 귀신아, 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임신치 못하게 하는 귀신아, 가라.”

어디 그뿐이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업이 안 되게 하는 귀신아, 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방황케 하고 죄짓게 하는 귀신아, 가라.”... 예수 이름은 만병통치약이요, 만사형통의 키이기에 다 가능하다. 종합병원장, 당신도 될 수 있다. 당신에게 주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거짓은 잠깐이나 진실은 영원하다

정확히 4년 만이다. 지난 2019년 1월의 교단 목회자 세미나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혀 모일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2023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안으로는 교단의 내실을 굳건히 하고 밖으로는 다시 세계의 영혼들을 추수하시려는 목사님의 큰 그림이 이번 2023 교단 교역자 세미나로 이어졌다. 목사님은 자동차 연식이 오래되면 엔진 불링을 통해 새 차로 정비하듯이, 교단의 엔진역할을 담당하는 교역자들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 공언하셨다. ‘첫사랑을 잃은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세미나 주제부터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 뜨거웠던 첫사랑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나타나

리리~”. 목사님은 하루 세 번 직접 강의하시며 39년 목회의 노하우를 쥐어 짜내듯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전수하셨다. 설교 시간에는 밝힐 수 없는 이야기들조차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가감 없이 모두 탈탈 털어내며, 때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때론 격려하시며 매 강의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혼신을 다하셨다. “진실은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은 성경 말씀처럼 눈 깜짝일 동안에 사라집니다(잠12:19). 주의 종은 깨끗해야 합니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큰 자가 되려 하지 말고, 깨끗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완전한 지

옥에 간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그거 다 참고 인내하며 여기까지 왔건만 순간 살아보려고 거짓에 마음을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못하진 않겠지만, 안 합니다. 어떻게든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상급을 누릴 겁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자신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저 천국의 내 자리를 그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이 미련하다, 무식하다 해도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다, 유언처럼 새겨놓고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듯 말하는 것도



교단 교역자 세미나(3월 6~8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고 있다. 주일4부 은사집회에 최선을 다하신 목사님은 바로 기도원으로 출발하셨고, 주의 종들 또한 월요일 오전 9시까지 기도원으로 속속 몰려들었다. 여지없이 기도로 시작한 세미나 첫 시간, 목사님은 모든 주의 종들과 함께 ‘네가 주를 처음 만난 날’을 찬송했다. 오랜만에 목사님과 대면으로 만나는 첫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 찬송을 통해 각자 처음 주님을 만났던 순간,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달려온 사역의 길을 되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은 그 자체로 은혜와 감동이었다. “~ 주 예수 따라 항상 살

해를 주십니다(잠2:7).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나 자신과 부단히 싸워가며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결과입니다. 나는 지난 2005년 세계목회자 영성세미나 마지막 날, 세계 30여 개국에서 찾아온 목회자들에게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죽여서 기도원에 묻고 내려가라’고 외쳤습니다. 후에 만난 해외 목회자들은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교회 부흥의 동력이 되었다며, 그 문구를 직접 써서 방에 걸어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요8:44)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는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기도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도하기에 세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늘의 능력을 받아 지금까지도 부족함 없이 예수의 종으로서 당당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에게 구하니까? 그러니 목회에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구하며 나아가보세요. 먼저 하나님을 높여보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부족함 없는 풍성한 목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샘플 아닙니까? 나는 여러분이 진실로 나를 닮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목사



대성전 영상교육



혼신을 다해 세미나를 인도하셨다



하루 세 번 강의를 모두 인도하셨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약3:2~12)



복받길 원하면 남을 저주하지 말라

저는 종종 목회 38년을 뒤돌아보곤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왔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눈 덮인 산야를 걷는 심정이었고, 오아시스도 나타나지 않는 뜨거운 사막을 걷는 심정이었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 모함, 저주가 여름철 장맛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정말이지 사람으로서는 감당해내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저도 한 성깔 하던 사람인지라 그냥 맞받아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자고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아닙니까? 그러나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냐?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하더니 저주가 물 같이 그내부에 들어가며 기름 같이 그 뼈에 들어간다" (잠109:17~18)라는 말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당시 제게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었는데, 그분은 이런 저의 마음을 아는 듯이, "이 목사, 누군가 자네를 밟고 일어서려고 하면 그냥 밟혀주게나. 내가 밟혀서 그 사람이 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는가. 설령 그 사람이 자네를 밟거든 비록 힘들어도 이 목사는 절대 나 살자고 다시 그 사람을 밟는 일일랑 하지 말게."라고 권고하시곤 했습니다. 맞받아 저주하지 말라, 똑같이 짓밟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저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 보니 억울해서 눈물이 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진심으로 그런 그들이 가엾고 불쌍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런 세월이 흐르고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저주하던 자들은 저주를 받았고, 저는 오히려 원수 목전에서 잔에 기름이 흘러넘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부메랑 효과'를 아십니까? 자기가 던진 것은 결국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산울림 효과'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맞은편 산에서 '야호야호 야호...' 하고 울립니다. 하나 주고 되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6:7),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눅6:38).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왕은 자신의 사위이며 충신인 다윗을 몹시 시기하여 저주하며 그가 피하는 곳마다 쫓아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주와 죽음이 다윗에게 임했습니까? 오히려 자신과 세 아들에게 임했습니다. 반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음에도 살려주고, 그의 아들을 거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인정받으며 시온의 영광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 의해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는 형제들을 원



총회장 이초석 목사

망하며 저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요셉이 식량을 얻으러 온 형제들과 재회했을 때 한 말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원수 같은 놈들..." 하며 이를 부드득 간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창45:5)라고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기에 하나님이 일찍이 높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남을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에게 악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7:1~2)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남을 저주하면 너도 저주를 받고, 남을 축복하면 너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남을 저울질하면 너도 저울질당하고, 남을 업신여기면 너

도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좋은 것을 쥐야 우리에게 그늘도, 열매도 줍니다. 그런데 나쁜 걸 쥐보세요. 썩어서 벌레만 잔뜩 안겨줄 겁니다. 바다의 오염이 심각하지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바다에 나쁜 것을 자주 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 바다가 물고기를 기형으로 만들어버리고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자연도 그러할진대 사람들도 오죽하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잠18:20). 말이란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것 입

니 다. 독한 말을 하면 그것을 먹어 내가 죽고, 좋은 말의 열매를 하면 그것으로 내가 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주하는 말일랑 일절 하지 맙시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곧 자식이나 남편에게 '벌어먹을 놈', '나가 죽어라', 제발 이런 말일랑 하지 마세요. 둘째, 내가 애매히 저주를 받아도 맞받아치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세요 (롬12:21).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롬12:17~18). 스테반이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 회당에 있던 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 그를 공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니 무리들이 큰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함께 달려들어 성 밖으로 스테반을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그때 스테반이 부르짖어 한 말이 이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행7:60). 스테반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원수들

을 미워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기도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눅23:34).

언어는 예술이다 어떤 말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이에 머물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5:44),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눅6:27~28). 원수가 왼편을 치거든 오른편을 돌려대라 하십니다. 원수가 주리거든 먹고, 벗었거든 입히라 하십니다 (롬12:20).

"왜 그래야 하세요?" 하며 이해가 안 된다는 듯 고개를 가우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 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눅6:32~33). 맞습니다. 믿는 자는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요. 더욱이 온갖 저주, 수욕을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다독이며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게.' (롬12:19).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창12:3)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입니다.

까만색 물감을 칠하려면 먼저 내 손에, 내 옷에 까만색이 묻습니다. 빨간색 물감을 칠하려고 하면 먼저 내게 빨간색이 묻습니다. 남에게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면 먼저 내가 저주의 늪에 빠지게 되니 남을 축복하고 사랑하려 하면 먼저 내 마음에 축복과 사랑이 묻게 됩니다.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한 입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면 되겠습니까(약3:11)?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꾀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벧전3:10~11). 할렐루야!

:: 객원칼럼 ::

:: 오늘의 메시지 ::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와 결혼했다. 결혼 전에 딸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친구들이 사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명품이 부러울 수 있다. 그러나 절대로 그런 하찮은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너는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란다.”

나는 돈을 무시하는 목사가 아니다. 정말 돈이 귀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럼에도 딸아이에게 돈을 하찮은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하찮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무엇인가? 동물은 본능만 해결하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먹을 것이 해결되면 더 쌓아놓으려 하지 않고, 짝짓기 시기만 지나면 더 이상 음욕을 발하지도 않는다. 또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 전쟁도 하지 않는다.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 땅을 정복하고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를 정복했다는 소리를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사람은 어떠한가? 배부르게 먹고도, 충분히 쌓아놔도 더 챙기려 한다. 일천 궁녀와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다.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이 과연 만족했을까? 가장 많은 영토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과 칭기즈칸이 만족하고 행복했을까? 내 생각에는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가 있

었을 것이다.

천지만물은 다 피조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일부인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창1:26)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었다(창2:7). 즉 하나님을 닮았는 것이다. 그래서 동물은 본능적인 것만 해결되면 만족하며 살 수 있지만 사람은 천하보다 크고 귀하기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만족이 되고 행복할 수 있다.

심방을 하다 보면 어려우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어렵다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여유롭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감사를 알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 또한 은혜를 아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 지금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있는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첫사랑이 여전히 가득한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지...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은혜를 유지하고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내가 더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야 한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예수중심 교인들이 되자!

장영국 목사
jyk9191@naver.com

:: 신앙논객 ::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

얼마 전 대학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몇 년 만에 1박 2일로 MT를 다녀왔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모처럼 주안에서 귀한 교제와 단합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MT는 'Membership Training'의 줄임말로, 있는 그대로 해석하자면 멤버십, 즉 소속감을 강화하는 훈련이라는 뜻이다. 물론 세상의 대학가에서는 이 MT라는 말을 '마시고 토하고'의 줄임말이라고 할 정도로 잘못 쓰이고 있지만, 실제로는 화합과 단결, 섬김을 통해 서로 하나가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멤버십(Membership)은 꼭 이런 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백화점, 마트, 쇼핑몰, 인터넷 커뮤니티, 통신사, 프랜차이즈 등에서 폭넓게 쓰인다. 회원가입만 해도 포인트 적립과 할인, 각종 쿠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수록 멤버십 등급이 점점 올라간다. 그리고 마침내 VIP가 되면 일반 회원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곳은 멤버십이 없으면 아예 물건을 전혀 구매할 수 없거나 입장조차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도 멤버십이 있다면 회원등급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교

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VIP 등급으로 당당하게 예비된 모든 축복과 혜택을 받아 누리려는 사람이 있겠고, 일반회원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근근이 출입하며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 정도는 양호한 편이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이전에 어떤 계기로든 교회에 와서 회원가입은 했지만, 장기간 아무런 활동도 없고 출입도 없어서 휴면회원으로 전환됐거나 아예 회원정보가 말소된 사람들일 것이다. 휴면회원은 계정이 정지되어 다시 복구하지 않으면 회원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회원 정보가 말소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 사람들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멤버십은 어느 단계인가. 기왕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었다면 'VIP', 즉 매우 중요한 핵심 인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라”(벧후1:10).

신혁주 전도사

하나님의 계획

나에게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다. 여러 면에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이기에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상황도 잘 이겨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구나 보다. 친구에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던 중에 친구를 울리고 말았다. 내가 했던 말이 숨기고 있던 마음을 드러냈단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나는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다. 무너질까 봐 하나님 옷자락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던 친구였다. 다행히도 친구와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다.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하나님, 친구를 붙들어주세요.”
그 순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마음이 들었다. 다 주님의 계획안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 맞아.’

친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다. 우리가 계획하더라도 그 길을 예비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늘의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꿩도 입히시는 주님이신데 나는 무엇을 염려하였던가.
‘그래, 친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이 밀려왔다. 주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 친구.
그래서 승리할 그 날을 기대하며 응원하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이시다(잠16:9).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이인영 집사
ccbgrace@naver.com



:: 소망의 언덕 ::

참치에 대해 알고 있는가?

생선에 대해 박학다식한 장로님과 식사하는 도중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쉬지 않고 헤엄을 치면서 몸에 근력이 생긴 물고기들이 바다 밑바닥에 배를 깔고 움직이지 않는 물고기보다 훨씬 쫄쫄득득하고, 맛있고, 고소하며 가격도 비싸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누비는 참치값을 그렇게 잘 때겨준다는 것이다.

미국 과학전문지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참치의 평균 시속은 32km. 하지만 먹이를 잡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는 최고 시속 160km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강속구를 던지는 야구 선수의 구속이 150km대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속도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극지방을 제외하고는 어느 해역이든지 살아갈 수 있는 적응력과 평생 지구 수심 바퀴를 헤엄치는 경이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참치는 활동력과 힘만큼 참치는 풍부한 영양의 보고로도 유명하다.

참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7년간 단 한 순간도 휴식을 멈추지 않는단다. 멈추는 순간 수면으로 가라앉기 때문에 잠든 순간에도 속도를 낮추어 몸을 움직인다. 참치의 아가미는 다른 물고기

만큼 발달되어있지 않아서 1초에 자신의 덩치만큼 물을 먹지 않으면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어 죽게 된단다. 쉽게 설명하면 다른 물고기들은 헤엄을 치지 않아도 아가미로 물을 빨아들이면 아가미 안에서 자동으로 산소를 흡수하는 반면, 참치는 그러한 기능이 없어 수동식으로 물을 더 빨아들일 때 아가미로 밀려 들어오는 압력으로 물속의 산소를 터뜨려 흡수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잘 때에도 참치는 쉴 수가 없는 것이다. 자면서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

버릴 것이 없는 '영양의 보고', '물속의 포르쉐'라는 별명을 가진 참치는 실상은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불편함 덕분에 참치는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치의 불편한 아가미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불편한 아가미로 인해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저 넓디넓은 바다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현승 목사

:: 간중 ::

:: 참된 깨달음 ::

귀신이 떠나고 손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예수중심교회에서 35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박수정 권사입니다.

89년에 송의성전에서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과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자 저에게 온갖 핍박과 환란이 몰아쳐 왔지만 좌절이나 침륜에 빠진 적 없이 지금까지 조장으로 30년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제게 닥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받곤 했습니다.

이초석 목사님의 39년 목회가 절대 녹록지 않으셨지만, 성공자의 모습으로 앞장서 가시는 목사님을 보며 목사님이 전해준 생명의 말씀을 양식 삼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손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손자가 가끔 감기에 걸려 열이 나고, 열이 나면 경기를 해서 응급실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기도하고 병원 다녀오면 금방 좋아져서 그저 애들이 커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려니 생각하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6살 된 작년부터는 경기를 넘어 열구 부분엔 경련이 오더니 코로나 걸린 이후에는 강박증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할 때 아이 아빠인 제 아들이 한 꿈을 꾸었습니다. 손주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들이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장롱 속에 숨은 걸 찾아내 죽이는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게 귀신의 역사라고 깨닫고는 '이제 실체를 알았으니 다 나왔다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보이는 건 허상이다'라고 입으로 뿌렸습니다. 그러나 아들과 며느리는 의술에 대한 의지가 더 컸습니다.

올해 7살 된 손자가 또 경기를 했는데, 지켜보자던 의사는 이제 약을 먹이라고 했고, 약을 먹기 시작하면 3년은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매일 눈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손자를 생각하니 저의 목숨이라도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죄가 있다면 차라리 그 죄를 저에게 돌려 짓값을 제가 치르게 하시고, 손주만은 고쳐달라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달라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 아들과 며느리가 4부 은사집회에 안수받으러 간다고 토요일부터 준비하고 기도하던 중, 손자가 열이 난다고 하니 열 체크 기계를 들고 2분, 3분 간격으로 열을 체크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던 제가 '귀신이 떠나가려고 마지막 발악을 한다'는 마음이 들어 아들과 며느리에게 '죽지 않을 테니 열 그만 재고 하나님께 맡겨라'

고 말했습니다. 두 내외는 2월 5일 4부 예배에 참석하여 안수받고 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안수해주시면서 '100% 귀신이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안수받고 온 그날 밤 저는 꿈을 꿴습니다. 꿈에 아들네 집에 갔는데 천사들이 손자가 매일 자리 깔고 누워 자는 이부자리를 걷어내고 대청소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누워있던 곳에 똥물과 오줌물이 썩어서 더럽고 시커먼 물이 고여있는 게 아닙니까. 제가 '저런 곳에서 그동안 잠을 잤으니 병이 안 날 수가 있었겠는가. 세상에~ 웬일인가.' 하며 안 쓰는 방에 몰래 숨어서 살던 귀신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서서 '어떻게 저렇게 몰래 숨어 사는데 몰랐을까' 하는데, 그곳에서 죽은 조상들이 보였습니다.

꿈을 꾀 후 저는 이제 자리 잡고 있던 병이 치료되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새벽에 배 가서 기도하고 집에 와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하나님이 치료해주셨으니 믿고 입술로 시인해라. 너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테니 명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후로 지옥 같았던 우리 가정은 밝은 기운으로 가득 차고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귀신을 쫓아주신 총회장 목사님과 그동안 기도해주신 인천교회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4부 은사집회를 통해서 저처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병을 치료하고, 묶인 걸 풀고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시길 기도합니다.

인천예수중심교회 박수정 권사

평가 기준

올해 1월 지자체 공기업의 시니어 직원 채용 면접관을 할 기회가 있었다.

시니어 직원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반사무, 기술직, 운전, 안내, 주차장 등의 직원을 우선 채용하는 제도인데, 안정적인 일자리라 인기가 많았다. 3명의 면접관이 3일 동안 250명의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채용담당자가 면접에 들어가기 전 면접관들에게 부탁한 것은 '인정과 사정을 고려하지 말고 일 잘할 수 있는 직원을 뽑아주세요.'였다.

어르신 일자리라도 몇 가지 기준으로 철저히 능력 위주의 평가를 진행했다. 먼저, 면접을 잘 볼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직군별 평가 기준이 있지만 공통적인 첫 번째 기준은 '건강'이다. 면접은 입장하는 순간부터 평가가 시작된다. 어르신 일자리지만 건강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씩씩하게 들어와야 한다. 연민의 감정을 얻으려고 힘없이 들어오면 합격하기 힘들다.

두 번째 기준은 '전문성'이다. 일반사무 직이면 워드, 엑셀 등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하며, 기술직군은 '분야별 자격증', 청소 직군도 경험이 있는 경력직이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경험이 있는 분야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기준은 '웃는 얼굴'이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은 민원에 민감하기 때문에 민원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면접장의 분위기가 딱딱하지만 긴장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도사님, 목사님에게 말하듯이 웃는 얼굴로 대답한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합격을 위해 자격증 취득, 건강관리 등 최선을 다해 준비하신 어르신들의 열정에 감동한 3일이었다. 세상의 평가도 이렇진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평가 기준과 합격 방법을 성경에 공개해놓으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7:21). 송명국 집사

:: 프롬인턴넷 ::

잃은 것과 있는 것

독일의 재무부 장관을 지낸 '마티 바텐'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매사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임하여 국가를 위해서도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어느 지방으로 여행을 갔다가 돈이 적어 싸구려 여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밤새 도둑을 맞은 것입니다. 여행 중에 구두를 잃어버리고, 다시 사려고 보니 사라 나갈 신발도 없어 화가 나서 어느 놀이 신발을 훔쳐 갔느냐고 욕을 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 가게 하다니...' 하며 아무 관련이 없는 하나님까지 원망하였습니다. 그날은 마침 주일이었는데 여관 주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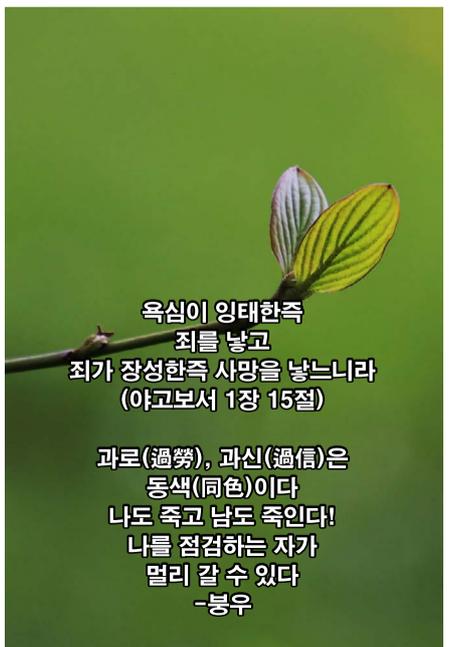
창고에서 현 신발을 꺼내어 빌려주면서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해서 그는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남들은 모두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그는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고, 신발을 도둑맞은 것 때문에 계속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을 보니 찬송을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큰 충격을 받고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두 다리를 전부 잃어버렸으니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을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신발만 잃어버렸으니 신발이야 없으면 또 사서 신으면 될 것을 괜히 남을 저주하고 하나님까지 원망하였구나!'

그 후로부터 바텐의 인생관이 달라졌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사 감사했고, 남을 원망하지 않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니 모든 일들도 잘 풀려서 독일의 재무장관까지 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처럼 부자집 딸로 태어나지 못했다.”, “나는 누구처럼 배우지도 못했다.”, “나는 누구처럼 잘 생기지도 못했다.”고 말하기도, 생각지도 마세요. 분명 당신에게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허찮은 것이라 여겼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것을 통해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굳이 없는 것을 보며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삽시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과로(過勞), 과신(過信)은 동색(同色)이다 나도 죽고 남도 죽인다! 나를 점검하는 자가 멀리 갈 수 있다 -봉우